

주님께서 부활하신 곳.

주님 무덤 성당은 예루살렘 구 시가에 위치한 기독교 성당이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고 그 시신이 묻혔던 곳, 즉 무덤이라 하여, 부활하신 곳입니다.

2025-4-17

우리 주님이 묻히신 곳이 그분이 계신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것

이 같은 교회, 성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갈보리에서 내려오신 후에 그들은 그분의 몸에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갈보리와 무덤 사이였으니 그들이 모인 곳이었을 것이다. 그의 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의 시신을 무덤을 덮고 있는 다락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동... 이 장소에는 적어도 4세기 이후로 그리스도의 무덤 위에 있었던 구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11세기에 칼리프 알-하킴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 aedicule의 최근 복원에서 그들은 당시의 시멘트를 발견했습니다.

콘스탄틴의, 아니 최초의 대성당이 세워진 때부터 원래 무덤이 조각되었을 기반암. 어쨌든 4세기의 시멘트 연대는 적어도 600년 전입니다.

이곳은 성묘의 아티큘레로 성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음에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리마태아의 요셉은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으므로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무덤은 바위를 깎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덤에는 시신을 감쌀 수 있는 대기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체는 벤치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을 굴려 무덤을 닫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무덤은 그가 우리 주님께 드린 것인데, 그곳은 성소 안방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덤이 더 많은 저쪽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묻혔을 것입니다. 성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인 성묘 교회에서 다른 무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도 이곳에 묻혔을 것입니다.

aedicule 뒤에 시리아 정교회 예배당에 있는이 더 겸손한 무덤의 물론 그는 자신의 무덤을 우리 주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